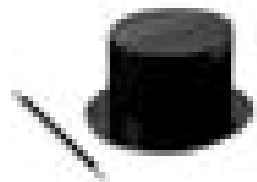


[ 신춘문에 당선작 ]

단편소설



마술극장



1 마술극장의 간판이 빛나고 있다. 검은 바탕에 반짝이는 붉은 글씨를 박아 넣은 화려한 간판이다. 검은 간판의 테두리에 붉은 꼬마전등들이 빙 둘러서서 1초에 한 번씩 꺼졌다가, 다시 켜진다. 지나치게 화려해서 도리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웃한 모텔과 단란주점의 간판들과 꽤 잘 어울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뒷골목 유흥가에 영풍하게 섞인 마술극장은, 고립무원 지경을 피하기 위해 보호색 작전을 펴고 있는 품새다.

간판 아래에 문이 하나 나 있다. 문이라기 보다는 벽에 그은 금처럼 보인다.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그려놓은 그림인 듯, 문의 가로와 세로 선들은 약간 비뚤게 서로 뺨여가다 가 어찌어찌 겨우 만나 열린 도형 신세를 면하였다.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다. 그러나 안 열릴 듯 잠잠히 닫힌 문은 슬쩍 문고리를 잡아당기면 손쉽게 입을 벌린다. 글썽 같은 어둠을 향해 뻗어간 지하 계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서 내려가, 마법사 삼촌이 속삭여준다. 하지만 저긴 너무 어둡고, 뭔가 무서운 것이 있을 듯해요. 게다가, 이 건 좀 지저분하잖아요. 잘 생각해봐, 실은 너도 꽤 끌리면서, 그러면서 삼촌은 그녀의 등을 확 떠민다.

저녁노을이 건물들 사이 내려 있었다

불현듯 플래카드 하나가 눈에 들어 왔다

‘당신의 삶에는 마술이 필요합니다’

2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했던지 옆 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어둠 속에서도 정성껏 화장한 여자의 눈매가 확 눈에 들었다. 예뻐 보인다고보다는 그저 시간 꽤나 들었겠다 싶은 공들인 얼굴이었다. 그 낯... 윤은 말끝을 흐리며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전 요 앞에 붉은 플래카드 보고 왔어요. 꽤 재미날 거 같죠?” 여자는 윤의 시원치 않은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품새였다. 윤은 일부러 가방 안을 뒤지는 척 하며 여자에게서 등을 돌렸다.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말을 걸어 왔다.

“정말 맞지 뭐예요. 사는 게 이게 뭔지, 정말 마술이라도 필요하잖아요?”

여자는 혼자서 까르르 웃어댔다. 여자의 얼굴 여기저기 점선처럼 살짝 숨어있던 주름들이 한꺼번에 자글자글 튀어나왔다. 화장장으로도 도무지 가려지지 않는 여자의 주름에 윤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여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윤 역시 플래카드의 문구에 끌려 여기까지 오게 된 셈이었으니까. 서른 셋, 결혼하기엔 마술이 필요한 나이였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삭아 내리는 무덤 속의 새 그릇처럼, 그녀는 소문도 없이 낡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그새 또 늘어난 자글자글한 주름살과 검게 부어오른 눈 밑 살을 바라보는 것은 처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풀한 것이고, 어느 정도는 유행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윤에게 적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활짝 열리던 문들은 젊은 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다. 소리 없이 하나 둘 닫혀 가는 거 싫더니 이제 거의 모든 문이 육중하게 잠겨 있었다.

어쩐지 절박해져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자, 이제 뭘 좀 알겠어? 문지기들은 이를 드러내며 음흉하게 웃어보였다.

결혼하지 않은 서른 중반의 여자는, 세상이 보기에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묵은 책무 같은 모양이었다. 도무지 세상의 문 안에 들어서지 않으려 하는 천방지축 이기적인 물건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여성의 책무를 저버린 것들, 혹은 주제도 모르고 콧대만 치켜세우고 호가를 높이다가 허방에 빠진 처치곤란들,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스러운 물건들. 그들은 세상의 필요에 따라 농락 가능한 팜프 파탈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녀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면 대뜸 누더기 옷 통치로 처부되기도 했다. 그녀들은 위험한 짐승이거나 귀찮은 존재였다.

윤의 어머니는 세상의 대변자 노릇을 자청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어머니는 다양한 스펙의 남자들을 맞선 상대로 돌아다며 윤을 다그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윤과 만날 때마다 윤의 등장을 함부로 후려치며 이 집글 징글한 것이, 를 연발하곤 했다. 남자들은 한결같이 대기업의 촉망받는 사원이거나 밝은 전망을 지닌 능력 있는 청년들이었다. 지경계도 유사한 그들의 이력 속에는 그러나 그들이 꽤나 심한 마초기질의 소유자라거나 종종 술을 마시며 애인을 때리기도 한 다거나 하는 좀 더 중요한 사실들은 결코 들

어있지 않았다. 스물쯤의 윤이라면 모를까, 서른셋의 윤은 드러나는 것들만을 믿을 만큼 그리 순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 사람으로 결혼하느니 하는 그야말로 스무 살 어린 처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른셋의 여자가 직업도 집도 없는 문학청년 파우어 결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계절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윤은 정말로 위험해져 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인데, 점점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고 있었다. 윤의 마음에 점점 갈날 몇 개가 돌아왔다.

윤은 맥없이 버스 의자에 기대어 앉아 버스가 흔들리는 대로 따라 흔들리며 덜덜덜 경 썰려 가고 있었다. 저녁노을이 늘 그렇기 뉘, 하는 심드렁한 자세로 건물들 사이 하늘에 내려 있었다. 불현듯 플래카드 하나가 눈에 들어 왔다.

‘당신의 삶에는 마술이 필요합니다.’ 윤은 무의식중에 플래카드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때로 세상의 무수한 속된 말들 중에 어떤 한 마디가 내게만 보내는 신의 전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대체로 그것은 착각일 것이다. 내 마음이 순간 가 닿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아무렇게 만드는 거짓들. 우연들은 그렇게 착각 속에서 운명이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뒤튼다.

“지금 마술극장으로 오세요.” 윤은 플래카드 아래쪽에 조그맣게 쓰인 전화번호를 얼른 핸드폰에 입력했다. 우연이든 운명이든 뭐라도 좋아, 윤은 중얼거렸다. 이 심드렁한 인생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단 한 순간이라도 뒤튼들 수 있다면.

객석의 불이 꺼졌다. 빛의 둥근 원이 천천히 무대 위를 더듬었다. 뭔가 시작하려나 봐요. 여자는 다시 소곤거렸다. 둥근 빛 속으로 검은 연미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 여자가 낮은 탄성을 내질렀다. 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탄성이 스쳐갔다. 기를 바른 머리를 울백으로 빚어 넣긴 중년의 마술사 사내를 기대했었던가.



그림 한희원

◇한희원 약력 ▲조선대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20여 차례 ▲1997 광주비엔날레 기념전 ▲남도문화 원류를 찾아서'전 등 참가 ▲그림 '새벽' 회장

다. “마술이 필요하신가요?” 마술사 남자는 빙긋 웃으며 손가락을 딱, 울렸다. 수감생은 열 명 남짓이었다. 그들은 첫날 마술사 남자에게서 간단한 동전 술기 마술과 몇 가지 트릭들을 배웠다. 수업이 끝나자 윤의 옆 자리 여자의 제안으로 일행은 저녁을 먹으러 갔다. 여자는 문화센터에 줄곧 다녔다고 했다.

“해?” 문화센터 여자는 가슴에 손을 모으고 부르르 진저리 치는 시늉을 했다. “그렇다면요, 여자들아!” 수감생 중 유일한 남자인 청년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다니깐요. 여자 꼬시기엔 마술이 최고예요.” 청년은 병아리 여선생과 비슷한 연배인 듯했다. 바람둥이 같은 말투와는 달리 청년

리에서 장미꽃을 꺼내는 마술을 끈기 있게 반복했다. 그러면서 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일까. 환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흉내 내는 것도 아니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환상이 아니었던가. 그의 마술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몇 가지 마술을 그는 줄거리로 엮어 한 편의 이야기를 펼쳐 보였다. 마술은 손장난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리로 초대하는 거죠.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에요. 여러분 자신조차도 흘리는 마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마술사예요. 마술사 남자는 객석 사이를 돌아다니며 초보 마술사들의 서툰 동작을 교정해주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문화센터 여자는 마술사 남자가 곁에 올 때마다 आय, 잘 안 되네, 전 소질이 없나 봐요, 하며 또 까르르 웃어댔다. 마술사 남자는 그럴 때마다 예의바르고 친근하게 여자를 북돋워 주었다.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면 아주 잘 하시는데요. 여자는 또 어머니, 정말요? 하면서 진저리치는 시늉을 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마술극장에 모여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과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연습했다. 마치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완박한 연기를 향해 그들은 매진했다. 연습의 과정이 마술극장 바깥에까지 퍼져

었다. 신문 기사 속의 그는 여전히 말쑥하고 단정했다.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화려한 공연 의상을 입고 서 있었다. 어디선가 가족이 다 함께 공연을 했다고 했다. 그의 두 여동생들은 금테를 두른 모자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팔이며 옷자락에는 반짝이는 스텝글들이 춤추듯 빛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특집 기사로 따로 묶여져 있었다. 사진 속 그의 아버지는 윤이 상상했던 그대로의 마술사였다. 머리가 하얀 백발이라는 점이 좀 다르달까. 그의 손에는 흰 비탈기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었다. 기사는 몇 개의 문장으로 그를 가족의 내력담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덩블링이 전문인 그의 어머니는 서커스단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다고 했다. 그들의 아들인 마술사 남자는 대학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 후 가업을 이어 마술사가 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마술극장의 이야기도 잠깐 언급되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두 살이 아래였다.

그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전국을 떠돌았을까. 천막을 치고 광대 분장을 한 채 한발자전거를 탔을까. 실수라도 한 날이면 아버지에게서 채찍으로 매를 맞기도 했을까. 밤에는 흙바닥에 야전 침대를 펴고 온 식구가 함께 웅크려 잠들었을까. 윤은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사진 속의 그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환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흉내 내는 것도 아니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었던가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윤은 꼬박꼬박 마술극장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마술은 늘 손끝에서 멈추고, 삶은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윤의 삶 안에 그가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그가 마술을 부리고 있는 것만이 틀림없었다.

문화센터 여자가 윤을 보자마자 손목을 잡아끌었다. 우리 선생님 신문에 난 거 봤어, 자기? 여자는 가방 안에서 차곡차곡 접은 신문들 꺼내어 펼쳐 보였다. 도민 신문이

완전 마술사 가족이다. 그치? 까르르, 이촌스런 금테 옷 좀 봐. 문화센터 여자가 새로 도착한 다른 이를 붙잡고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윤은 문화센터 여자에게 강렬한 적의를 느꼈다.

생각해보면 그가 안쓰러워 이유는 없었다. 그는 마술사이고, 마술사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었고, 마술사 동생을 둔 속속들이 진짜 마술사인 것이다. 그를 안쓰럽게 느낀 것

<25면으로 계속>